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바라며**

심사는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계량화도 대책이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 없이(그런 기준점이 불가능하다) 다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계량화는 딱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 ‘판단’이나 ‘감상’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신뢰받기 어려운 일이며 사람마다 판단과 감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다. 사실 이분이 모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분이 어떤 영향력 있는 자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혈연·학연·지연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알아서 뒤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을 선택했다면 일단 최상의 심사위원 구성일 테다.

그런데 이 단계부터 절대적인 의심을 받는다. 실무자의 기준이 과연 공정했는가. 저 무수한 철밥통 심사위원들은 뭔가? 왜 누구나 예상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불특정다수의 심사위원 풀에서 심사 압박 때마다 랜덤으로 뽑기도 하는데, 그 심사위원 풀은 누가 또 어떻게 선정해서 구성했는가? 의심하기로 들면 한 없이 의심스럽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정해졌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어떤 인연에도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공정한 잣대로 심사했다고 하자. 그게 가능해? 역시 엄청나게 의심 받는다. 여러 가지 의심을 받지만, 가장 큰 의심은 그 심사위원 개인의 잣대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것이다.

누가 봐도 공정한 심사위원이 누구냐 인정할 수 있게 공정하게 심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신뢰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혼자 심사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 아리송하지만 만장일치가 거의 없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 두어 분이 ‘최고’라고 강력히 주장하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다섯 사람이 ‘보통’이라고 본 작품이, 한두 사

람이 ‘최우수’라고 주장한 작품들을 이 기기도 한다. 다른 이들은 우수하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도 이것이라고 우겨서 1등이 결정되는 때도 있다. 결국 다수결을 자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최선의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으니까. 하도 의견 일치가 안 돼 ‘당선작 없음’이라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심사위원부터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지 못한 작품이 대중 사이에서 두루 신뢰받기는 어려울 테다.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해서 대중에게 무조건 신뢰받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면 대중은 아무렇지도 않게 심사위원을 욕한다. 보는 눈이 광이네!

즉, 제 아무리 공정하게 위촉된 심사위원이 제 양심과 상식과 체면을 걸고 제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이거나 혹은 다수결 및 합의상으로는 ‘최고’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최고’인 작품·사업은 절대로 뽑힐 수가 없는 것이다. 따른 공정하기 위해 예심이나 본심, 1차·2차로 심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는 더욱 불공정할 수 있다. 본심에서 최고였을 작품이 예심이나 1차에서 탈락하는 일이 왕왕 있다. 대중에

게 최고였을 경우가 심사위원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문학판 심사에서든 그렇든, 각계 각 분야 하더라도 각종 심사가 다 마찬가지다. 지역·학연·사제연 등 사적 인연에 관려 ‘뺨’·‘로비’에 앞아서 가는 경우,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받는다. 결국 심사 결과를 대중이 신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자기(네) 돈 쓰겠다는 데는 그래도 좀 공정하게 주면 안 될가요. 바랄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국민 세금 들어가는 데는, 세금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해야 한다. 보다 공정한 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어떻게 해도 제도상 불가능하다면 결국 심사자 개인의 상식과 양심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역시사지라고, 심사 받는 마음으로 심사를 해 봐야 할 테다.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문화 예술계에 투여될 모양이다. 아무려나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 문화 예술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더욱 불공정할 수 있다. 본심에서 최고였을 작품이 예심이나 1차에서 탈락하는 일이 왕왕 있다. 대중에

**종교칼럼**

**자주, 자활 그리고 자립**



**정세완**  
원불교 능성교당 교무

금 오르다가 쉬기를 반복합니다.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생각과 육신이 따로 행동합니다.

오늘 생활은 정신이 힘 있어야 하지만 육신도 힘이 있어야 힘을 깨닫게 하는 산행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 종사는 공부인들은 3가지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사용합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마음은 대부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 화나고 괴롭고 또한 즐거운 외부의 상태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화가 날 때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즐거울 때는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하지만 원망하는 마음과 유쾌한 마음이 나의 참 마음이 아닌 밖의 경계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마음들입니다.

아랫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처녀의 부모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칩니다. 처녀는 덕망 있는 율동네 절의 스님이 아버지라고 이

야기합니다. 처녀의 부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스님을 찾아가서 당시 자식이니 잘 키우라고 아이를 절에다 두고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하고 웃지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아이 아빠를 찾았으니 아이를 데리고 간다며 아이와 함께 절을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하고 웃기만 합니다.

정신의 자주력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참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참마음은 불되고, 묶이지 않는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비었으므로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허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되고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대기로 개를 때리면 개는 막대기를 물지만 사자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은 칼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하여 참 마음을 바라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

다. 육신의 자활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원하는 일들을 일부는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으면 힘 있는 요인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없으면 타인이 나 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바라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여전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인과 국가 관계에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조금의 현실입니다.

자주, 자활, 자립의 말들이 생각나는 삼월의 아침입니다.

**기고**

**3·1정신은 한마음, 한뜻, 한길을 지향하는 믿음**



**양홍**  
수필가·현대문예작가회 회장

을 기동으로 자자손손 후대들의 의식 속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결정이다.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 지도자요 목사다. 천도교 열다섯 분, 불교 승려가 두 분으로 그 선두에 선 기수는 교회였다.

수원 제암리 교회당을 위시해서 소실된 교회당만 47곳이고, 7만여 명의 성도가 희생됐다. 또 16만 명의 부상자, 50만 명의 투옥 인사, 200만 명이 끝까지 3·1운동의 금자탑은 역사의 자랑이다. 우리 교장 양립교회는 교회 타까지 빼앗기기도 했다.

100년 전 선두에서 민족 자립 독립운동을 일으킨 한국 교회는 조국의 심장으로서 박동하는 생명이었다. 일본에 유학생의 중심도 기독교 학생이었다. 국내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갖은 곤욕을 당해도 선두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외경의 총칼 앞에 맞섰던 학생들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유관순님의 순국, 부모는 외경에 총살당하고 집은 불타고 자신은 칼에 맞아 몇 톨막이 나기까지 멈추지 않고 만세를

부른 그 불타는 애국심 앞에 옷깃을 바로잡자. 선교사 맥킨지 목사는 한국의 독립 운동사를 쓰던 중 “나는 어려서부터 76정신(1776년 미국의 독립한 해)을 들이 왔다. 76정신은 미국 독립정신이다. 이 76정신을 오늘 한국에 와서 황색 피부 속에서 내 눈으로 보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땅 어디에서 이렇고 높고 3·1정신을 찾아 볼 수 있는가? 할말이 없다. 괴로운 현실로 주어진 생의 북판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불교가 겨레에게 주는 행동의 대담은 한마음, 한뜻, 한길, 한 목적을 지향하는 믿음이었다.

그때처럼 각 종교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보수와 진보가, 여와 야가, 우와 좌가, 100년 전 손에 손을 잡고 독립운동에 공동 전선을 편 민족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자.

독립 선언서 서두에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세계만방에 이를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권리를 영유하노라

...”라는 구절은 실로 얼마나 웅장한 선언인가. 자주 독립 민족이 세계 인류 평등의 대의를 만방에, 자손만대에 외치는 양심과 진리의 선언이 아닌가. 정의와 자유를 위한 비폭력저항의 선언이며 기원이다.

배타적 투쟁이 아닌 자유와 생존을 위한 맨주먹의 절규다. 이것은 온 겨레가 목숨을 건 추상같은 결단이다. 무자비한 탄압도, 비인도적 만행도, 극악한 고문도, 잔인한 총칼도 막을 수 없는 민족의 자주 독립. 죽음을 두렵지 않은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쟁취하려는 행위였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나라 안 곳곳에서 기념 행사를 한다고들 야단인데, 재물을 낭비하거나 걸치레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날의 애국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역사의 전통으로 삼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3·1정신을 높이고 애국 충정을 추모하는 절기에 자기 집단과 사리를 위해서 망언하거나 국민에게 편 가르기를 선동하는 저질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하겠다. 3·1정신은 겨레와 함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애국 애족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社說**

**‘하노이 선언’ 무산 그래도 대화는 계속돼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빈손으로 나왔다.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못했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담은 것으로 예상됐던 ‘하노이 선언’도 무산됐다.

‘하노이 선언’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얻어 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이 통한다.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에 이르지 못해

우리 국민으로서는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실무 협상 차원에서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평화선언 등 현안이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터라 당혹감도 크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지속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회담이 빨리 열릴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은 우려스럽다. 자칫 북미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얻어 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선언’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얻어 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이 통한다.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에 이르지 못해

**남구청사 기관 간 갈등 합리적 대안 찾아라**

300억 원대 규모의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당 부분을 놓고 남구청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애초 현 남구청사의 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에 나섰던 캠코 측이 불황으로 인해 투자금 환수가 어려워지자, 돌연 남구청을 상대로 계약서에도 없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구는 캠코의 투자비 상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려 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상태다.

갈등의 시작은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옛 화니백화점 건물(현 남구청사)을 105억 원에 매입한 남구청이 어려움을 겪자 캠코가 남구청에 300

억여 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대신 2035년까지 22년간 지하 1층-지상 4층 임대권을 양도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수익이 나지 않자 캠코는 지난해 6월 남구에 투자 손실액 282억 원의 상환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캠코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캠코는 남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임대 관련 귀책사유 발생 시 자체 부담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공실률이 높은 것도 경기 침체로 야기된 만큼 남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캠코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며 남구청도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글간 옛날 질병으로 여겨졌던 홍역(紅疫)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필리핀에서 들이쳐 홍역 환자가 8000명을 넘어서고 중국·일본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환자가 늘면서 때아닌 홍역 공포가 온 지구촌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역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발병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유입 등에 따른 감염으로 인해 매년 수십 명 정도의 환자는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법

---

**홍역**

홍역은 치료제가 없고 예방접종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발병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유입 등에 따른 감염으로 인해 매년 수십 명 정도의 환자는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법

은 홍역이 다른 역병(疫癘)처럼 나쁜 귀신 때문에 생겨나다고 믿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단(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린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던 제단)에 기도해 빌라”고 지시한 광해군 기록 등 홍역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던 내용이 상당수 남아 있다.

홍역은 일생에 한번은 치러야 하는 병이라 해서 ‘제구실’이라 부르기도 했다. 홍역을 앓고 이겨 내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역을 치르다가 죽은 유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다 보니 호적에 올리는 출생 신고도 홍역을 앓고 난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을 보면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몹시 앓을 먹거나 어려운 일을 겪다’라는 뜻으로 ‘홍역을 앓다(치르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을까.

홍역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환체가 없다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지)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주최 신청 배탈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42	문화부 220-0661 여론채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